



우리시대 참스승

경북중학교 교장 정 일 영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실적향상 도모

1972년 과주 교하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교육에 입문한 이후 지난 34년 동안 후진양성에 노력해온 경북중학교 정일영(62·사진)교장을 교장실에서 만났다.

정 교장은 지난 30여년의 교직생활을 통해 "구체적인 지식전수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됨됨이를 교육하는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정 교장은 과거에는 체벌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됨됨이를 교육해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최근에는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이나 의리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4년 경북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창조적 지혜를 가진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개성 존중과 교사의 자율성 보장으로 즐겁고 보람 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교육철학으로 경북중학교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의 틀을 마련했다.

첫째, 교사의 모습으로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사제동행하는 교사, 끊임없이 연구와 연찬으로 실력 있고 존경받는 교사, 교양과 지성을 갖춘 인격자로서 숭순수범하는 교사상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모습으로는 부지런히 배워 꿈과 희망을 펼치는 학생,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며 근면 성실한 학생,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이 부활한 학생상을 정립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셋째, 학교의 모습으로는 쾌적하고 정서적이며 즐거운 학교, 학생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교상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학부모의 모습으로는 사랑의 대화로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는 부모, 학교의 교육활동에 이해와 관심으로 동참하는 부모, 건전한 가정생활로 자녀의 사표가 되는 부모라는 틀을 갖고 학교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학교경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 교장은 학생들의 공동체적인 생활 태도 함양과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시켜



중·성남동중·연천 군남중, 의정부 의정부중·의정부공고, 포천 이봉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교양 장성중학교에 의정부 중의중학교에 교감, 2004년 포천 경북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오는 8월에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정 교장은 경북중학교에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운동선수 육성지원을 들었다. 운동선수 육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중학교는 엘리트체육으로 사이클부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중학교에 부임하여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는데 앞장서 온 정 교장이 추진한 주요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교사층 대리석 및 테라조 바닥공사▶교사 2.3층 프롤링 및 켈런트 타일 공사▶천정 도색 및 복도 참호 개보수 공사▶진입로 및 교사 외부 포장 공사▶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며 2005년도에는 ▶진입로 및 교사 외부 포장공사▶진입로 공원 조성 및 최외곽 교체 설치▶외곽관

계시관 교체 및 수족관 설치▶풍원길 증축 2개 및 동편 계단 설치 등이다. 이같은 시설 보완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기도 했다.

정 교장은 그동안 교직생활을 통해 성남교육장, 경기도교육감상 5회, 연천교육장상, 문교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교체육에 대해 정 교장은 과거에는 철봉, 평행봉, 뿔뿔 등 위험을 동반하는 체육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상 위험 등으로 구기 종목에 치우치는 경향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에 있는 다양한 체육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웃집 구제와 같은 푸근한 인상에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인화(人和)단결로 교육환경을 가꾸어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 교장의 모습에서 참스승의 모습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사회가 학교 운동부 지원해야'

자기 분야에서 으뜸가는 사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골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체육대회를 통해 평소와 연마한 신체기능과 잠재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교우간의 협동심을 길러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주말 체육 체험 학습일(학년별 체육대회)을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 체육대회를 통해 교과 학습활동에 진전 학생들에게 재충전 및 잠재력 표현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애교심 고취는 물론 학급 단합, 교사 학생 간 이해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매동국민학교 재학생에 한국전쟁을 맞아 송덕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강봉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온 정 교장은 과주 교하중학교, 성남 양명중·성남여

중·성남동중·연천 군남중, 의정부 의정부중·의정부공고, 포천 이봉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 교양 장성중학교에 의정부 중의중학교에 교감, 2004년 포천 경북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오는 8월에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정 교장은 경북중학교에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운동선수 육성지원을 들었다. 운동선수 육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중학교는 엘리트체육으로 사이클부를 운영하고 있다.

정 교장은 그동안 교직생활을 통해 성남교육장, 경기도교육감상 5회, 연천교육장상, 문교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교체육에 대해 정 교장은 과거에는 철봉, 평행봉, 뿔뿔 등 위험을 동반하는 체육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상 위험 등으로 구기 종목에 치우치는 경향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에 있는 다양한 체육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웃집 구제와 같은 푸근한 인상에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인화(人和)단결로 교육환경을 가꾸어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 교장의 모습에서 참스승의 모습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사 탐구

39

신봉초등학교 교무부장 한 상 선

'심는데로 거두는 농심교육'을 교육철학으로 삼아 신설학교인 신봉초등학교에 2005년2월 부임하여 3차례나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등 신설학교 교육의 틀을 완성하는데 노력해 온 교무부장 한상선(49·사진)교사를 만났다.

한 교사는 포천출생으로 포천초등학교, 포천중학교, 포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방송통신대에 편입한 후 졸업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농업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강원대학교 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사교사로 알려져 있다.

1979년3월10일 선단초등학교로 첫 부임하여 교직을 시작한 한 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홍익인간교육을 실시했고 따뜻한 인건비가 넘쳐나는 사람 만들기의 인성교육을 실천했고 심는데로 거두는 진리의 농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단초등학교, 의북초등학교, 연천 전곡초등학교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진다"

뜨거운 교사의 가슴으로 학생 교육해야

교, 연천초등학교, 안산 고잔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월 신설학교인 신봉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로 발령 받아 교육과정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가슴으로 다가간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어울리고 웃어주고 공감하는 접근은 물론 아이들마다 다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정치적 함의의 논리에 의해 교육정책이 자주 변화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해 한 교사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교 교육비전에 대해 한 교사는 "보통의 학부모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식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한 교사는 어렸을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법(체벌)'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다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밝히기도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이들을 보다 나은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신봉초등학교 교육현실에 대해 한 교사는 퇴근 시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평교사가 오후8시~9시에 퇴근하고 교장·교감선생님이 오후10시에, 교무부장이 오후11시에 퇴근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것은 신봉 교직원 모두가 학교발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해 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신설학교의 틀(기반)을 만들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었다.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계획을 세 번씩 바꾸어야 했다. 그것은 학생과 학습수, 교사수 등의 변화가 지속적이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면 대학교수로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원하는데 초등학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국가의무사항인 병역문제를 5년 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키워 준 초등학교에 무언가 제대로 보답을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교사는 신봉초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수정했다고 한다. 송우초등학교에서 학교 신설업무때 만든 교육과정이 1차,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2차 수정, 1학기를 마치고 나서 문제점 보완 등 3차 수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초등수정된 것은 만들어 가는 수업으로 학교특색사업과 노력중점 사업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교장의 경영관과 교육철학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육보다도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며 초등학교에 우수하고 훌륭한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천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핸드블럼을 1년동안 지도하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출현한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일동초등학교에서는 추수전수, 아리랑 대원지도와 특수학급 담임교사, 문제아들 인성지도에 힘써 2001년 경기도교육청 발간 <상상>지에 문제아 인성지도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농학박사 한상선 교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 활동 결과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포천교육장 표창(1985.12)▶안산교육장 표창(1987.12)▶안산시장 표창(1988.5)▶연천교육장 표창(1989.6)▶경기도교육감 표창(1989.10)▶포천교육장 표창(1994.10)▶연천교육장 표창(1998.5)▶경기도교육감 표창(2001.12)▶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2002.5)▶인성교육실천사례 경기도교육감 상장 수상(2003.11)▶학교평가 우수교사 경기도교육감 표창수상(2004.12)▶포천교육장 표창(2005.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 제5대 총장 이천수 박사 취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종단입원들의 반대에 사퇴한 전 이원우 총장의 사퇴를 수리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이사장 박동기)는 제5대 총장에 이천수(63·사진) 박사를 선임하고 23일부터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이천수(李千洙)총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본的人權으로서의 教育權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총장은 행정고시(6회)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문교부 대학정책실장,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교육부차관(37대/취임:1993년9월 4일 퇴임:1995년12월25일),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1996.7.1-1997.1.9), 순천향대학교 3대 총장(1997.3.1-2001.3.1), 백석대학교(구.천안대학교) 2대 총장(2001.3.1-2003.3.1), 경문대학교 이사장(2000.2.1), 이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총동문회장 유인선(26회)氏 추대

8천여 동문회합과 고향 가산 위해 努力 다짐



가산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21일 서울에서 위치한 송우웨딩홀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 겸 총 동문들의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가산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위치한 송우웨딩홀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 겸 총 동문들의 만남의 행사를 가졌다.

제1부 행사로 총동문회 발전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현 가산초등학교 축구단 후원회장이며, 가산농협 심재호 조합장(1996.7.1-1997.1.9), 순천향대학교 3대 총장(1997.3.1-2001.3.1), 백석대학교(구.천안대학교) 2대 총장(2001.3.1-2003.3.1), 경문대학교 이사장(2000.2.1), 이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어 감사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안 등 총회를 마치고, 제2부 행사로 내빈소개와 신임 총동문회 회장으로 추대된 유인선(26회)동문 이 10대 회장 취임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윤동춘(10회) 초대

회장의 대한 극진한 치하와 동문회의 유서 깊은 역사를 일구어 놓은 역대 회장님들께 드린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여 8천여 동문의 화합과, 고향 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후배 동문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재호 가산초교 축구단 후원회장은 "우리 꿈나무 축구단이 동원컵 전국 유소년 대회에서 8강에 오르는 등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후배 육성 발전을 위해 통 바디 25인승 전용버스를 구입 지난해 11월21일 기증식을 가졌다"며 "협찬해주신 동문들들 비릇

하여 관계자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3백여 동문들은 모교와 후배 꿈나무들의 사랑과 고향 가산의 발전이 바로 총동문회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동문들의 건강과 화합으로 우리 고향 가산 농촌과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건배와 화합과 여흥과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 교가 제창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 ▶초대회장 윤동춘(10회)▶6대회장과 협동나무 축구단 후원회장 심재호(19회)▶7대회장 이원우(20회)▶8대회장 이달호(21회)▶김중환 전 경기도의회 의원(20회)▶조돈창 연천교육장(25회)▶조경행 연천군 부군수(28회)▶윤영창 포천시 자치행정과장(27회)

이은미 주부메이거자단 총무(44회)

도교육청, 내실화된 성교육자료 제작·배부

성교육 장학자료와 ICT자료 CD 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 의식과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과시간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특수학생 포함)와 고등학교 ICT를 활용한 성교육 장학자료인 '성!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2종과 ICT활용 CD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제작·배부된 성교육 장학자료는 2005년 ICT를 활용한 중학교

성교육' 자료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및 고등 학교용 장학자료와 ICT를 활용한 CD자료로 학생발달에 맞는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별에 따른 제한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풍토를 만들며, 청소년의 당당한 성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여 성피해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나의 작은 변화로 달라지는 제2청"

경기도교육청제2청 직원업무혁신워크숍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송추유스호스텔에서 전 직원의 업무혁신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혁신 워크숍은 제2청 지난해 4월 26일 개청이후의 부서 조직 기능의 재조정, 내부구조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그리고 2청의 조직목표에 맞는 기능과 권한의 재 배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워크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들의 대상으로 워크숍에 따른 사전교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윤용 부교육감의 '삶의 과정을 통한 혁신마인드부여'라는 제목의 특강, 10개 과 부서별 토론, 부서토론 발표 등

한편 특강에서 최윤용 부교육감은 "자신의 탁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혁신마인드의 1호이며, 혁신을 위해 꿈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며 "우리 청 직원은 단기, 장기 목표관리를 하며, 그 반성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제2청은 이번 워크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송추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한 업무 혁신 워크숍에서 최윤용 부교육감의 '삶의 과정을 통한 혁신마인드부여'란 제목의 특강을 실시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청소년상담센터, 미래 향한 진로탐색캠프 개최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영북면 산정리 한화콘도에서 포천고등학교 1·2·3학년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진로탐색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진로탐색캠프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대학진학과 학과선택의 차이를 넘어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첫째날 ▶개회식과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검사, 자

신의 흥미, 가치, 기술 탐색 ▶박운국 포천시장 특강 및 손광석 포천고등학교 교장 인사 ▶박주현 경북대학 경영과 교수의 '미래사회와 타인의 리더십' 진로특강 ▶일과 직업의 세계이해 ▶진로문제해결, 의사결정훈련 둘째날 ▶나의 생활 모습그리기, 상상훈련 ▶희망전공과 직업을 연결 직업예측과 진로계획, 직업세계의 변화의 대안탐색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진 소장은 "진로를 선택할 때 자넷이 어느 직종에 적합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그 직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영북면 산정리 한화콘도에서 포천고등학교 1·2·3학년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진로탐색캠프'를 개최했다.

어떻게 보고 있으며,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성찰과 함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직업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를 토대로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윤동춘의 마뜩어따라하기

21. 저는 매 식후 세알씩 먹어요(복용해요).
I take three pill after each meal.
아이테크프뤼픽스에 후터이 치밀임!
*약간 졸릴꺼예요.
It may make you a bit sleepy.
잇메이메이유어빗슬리피

22. "닥터 조지"와 약속을 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Dr.George.
아이들이러이투메이키넌어 포인텐 투시닥터조지

*오전10시가 어떨까요?
How about 10 a.m.?
하러바웃텐에이엠편!

문의: 윤 동 성
(017-723-4977)cdlyoon@nate.com